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시기다. 지난해 전남대 교정의 흥매화가 활짝 피어나더니 흥매화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이들의 모습도 많이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했던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교정의 활기가 느껴진다. 이제 곧 교정은 벚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할 것이다.

태어나서 열두 살 때까지 벚꽃이 일찍 피는 부산에서 살았다. 이후 목포로 이사 와서 보냈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내 정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 기억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때도 부산에서의 파편화된 기억들 가운데에는 몇몇 대중문화 체험들이 있다. 부산에서는 성능 좋은 안테나만 달면 일본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다. 당시 우리는 아버지가 어디선가 구입해 온 일본제 컬러텔레비전으로 일본 NHK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컬러 화면으로 재현되는 일본의 풍경들은 흑백 화면 속 한국의 풍경과 현격한 대비를 이루었다. 컬러풀한 일본이 미래의 모습이라면 흑백의 한국은 과거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비대칭적 시간 감각은 비단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 것은 아니다. 당시 한국 텔레비전

대학 가요와 ‘벚꽃 엔딩’

프로그램 중에 TBC의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부산에서의 TBC 드라마는 서울에서보다 한 주씩 늦게 방영되었다. 한번은 서울에서 부산을 방문한 친척이 드라마 줄거리를 이미 알고 얘기해 주었다. 한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 그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다. 한국에서 ‘제2의 도시’라는 대도시 부산이었지만 서울에 비하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겨진 것이다.

그때도 당시 큰 인기를 모았던 대학가요제가 유년 시절의 대중문화 체험에서 비대칭적 시간 감각을 교정해 주고 있었다. 1978년에 열린 제2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부산대학교 중창단 ‘뿔물’이 ‘필려오는 파도 소리’라는 노래로 대상을 수상했다. 적어도 ‘대학 가요’라는 노래의 세계는 지역적으로 평등하며 동시적으로 느껴졌다고 할까. 그 무렵 김만준의 ‘모모’라는 노래가 MBC ‘금주의 인기가요’ 차트 1위에 오르니까 그랬는데, 이 노래는 광주외의 대학생이 부른 노래였다.

1979년에 목포로 이사한 뒤부터 내 유년 시절의 기억은 좀 더 또렷해진다. 그해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전남대 트리오의 ‘영랑과 강진’이라는 노래가 각별하게 느껴진 이유도 실은, 내가 살던 장소와 가까운 지역 대학생들의 노래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지은 전남대생 김중률은 광주 지역 방송인 전일방송(VOC) 주최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 대학가요제는 1978년부터 1980년말 신군부에 의한 언론통폐합의 여파로 전일방송이 문을 닫을 때까지 단 3회만 개최됐는데, 그럼에도 하성관의 ‘빙빙빙’을 포함한 여러 전국적인 히트곡을 생산했다.

요컨대 이 시기의 ‘대학 가요’는 ‘지역발 전국 동시 히트곡’을 현실화하는 영역이었다. 따라서 ‘히트곡’ 자체보다 그러한 현상의 배경을 이루는 지역 대학가의 활발한 노래 문화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이러한 노래 문화는 1980년대의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저항가요’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예컨대 김중률이 지은 ‘입을 위한 행진곡’은 또 다른 ‘광주발 전국 동시 히트곡’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학 가요’의 영역에서조차 그러한 동시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오늘날 전 지구적 동시성을 실현시키는 디지털 매체 속에서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은 일견 높아져 있지만 ‘한국 내 지역 문화’의 현실은 그다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역발 노래가 전국에서 들리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버스커버스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장범준은 상명대 재학 시절 벚꽃 떨어지는 대학 교정을 떠올리며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이 노래는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벚꽃 필 무렵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히트곡이 되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노래 제목은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사라질 것이라는, 지방대 소멸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한다. 노래의 낭만에 끄떡한 현실이 교차된다고나 할까. 지방대 소멸 현상은 노래 제목과 연관되어 내게 ‘학생들이 어떻게 노래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가온다. 이 엄혹한 시기에 웬 한가한 노래 타령이나고 하겠지만, ‘과거’에 묶인 지방 도시의 시간 감각을 되찾는 것은 벚꽃을 노래하는 마음을 되찾는 일과도 같을 것이다.

기고



한근우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기과 교수

‘반려 기계’ 전성시대

키고 만다. 스마트폰은 통화와 문자는 물론이고 음악과 사진, SNS를 통해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로 인해 하루의 시작은 스마트폰의 알람으로, 하루의 끝은 스마트폰이 들려주는 자정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어느덧 우리는 차가운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에 기대고, 불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계장치 이전에 2만 7000년 전 늑대를 사육하면서부터 인간은 동물을 반려 대상으로 맞이했다. 늑대는 세월을 거둬들면서,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견종으로 진화된다. 결국 인간은 생사를 함께한 반려동물에 큰 애착을 느끼게 되었고, 반려동물 역시 인간에게 의지하고 애착을 느끼며 기대게 된다. (인간이 개를, 개가 인간을 서로가 길들이는 셈이다.)

‘반려’ (伴侶)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이다. 즉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반려 대상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지할 만한 반려 대상은 인간에게 고독감을 줄여 주거나, 어려운 주변 환경에서도 감정적 위안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들 한다.)

그동안 인간은 기계장치 따위를 이용해 부족한 신체적 능력을 끊임없이 보완해 왔다. 수만 년 전 무명의 발명가가 만든 수레바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 주었다. 렌즈(lens)의 발명은 선명한 빛과 미지의 우주, 세포 속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제는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와 같은

의뢰기기를 통해 복잡하기 그지없이 소우주라고 불리는 인간의 두뇌(brain)와 의식의 세계까지도 관찰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일상적이며, 사소한 것까지 모두 나열한다면, 지면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할애해도 모자라다. 형태와 기능은 다르지만 인간을 위해 길들여진 기계장치들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어느덧 우리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동무가 되고 말았다. 즉 인간과 함께해야 할 ‘반려 기계’인 셈이다.

젓가락이 어린 아기가 낚생 처음 접한 바퀴 달린 이동수단인 ‘보행기’를 빌어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쇠약한 노인에게는 보청기나 돋보기 안경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함께하는 반려 기계는 ‘반려자’ ‘반려동물’과는 다르게 감정으로는 교감할 수 없는 차가운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려 기계’를 원하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안정감을 갈구는 인간의 마음. 그것이 기계든 생물이든 간에 우리는 무언가에 잠시나마 기대어 안정을 찾고 싶은 것은 아닐까? 후자는 기계가 인간의 반려자가 되겠다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아무리 생명이 없는 기계 덩어리일지라도, 나와 함께한 애착이 담긴 기계 장치는 말없이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존재이다. (반려동물이 사랑받는 이유와 비슷하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 주변 곳곳에서 코로나 블루스(Corona Blues)가 울려 퍼지는 지금 이 시대. 비록 차가운 ‘반려 기계’ 따위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나마 기대고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고



송재식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 환경본부장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물을 지키자

리는 ‘물발자국’ 줄이기를 통해서 물 소비량을 줄이고 미래의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 물발자국은 상품을 생산·사용·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물의 총량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사용된 물의 양이 많고 낮을수록 사용된 물의 양이 적다는 뜻이다. 유엔(UN) 산하 물·환경 전문 교육기관인 유네스코 IHE에서 발표한 농산물의 물발자국을 보면 사과 1kg는 210ℓ, 쌀 1kg 3400ℓ, 돼지고기 1kg 4800ℓ 등이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92년 47차 UN 총회에서 지정하여 선포한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은 그 무엇보다도 담수(fresh water)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직도 세계 인구 3분의 1인 22억 명은 안전한 식수를 얻을 수 없고, 대변으로 오염된 식수를 음용하여 콜레라·이질·장티푸스·소아마비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물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는 UN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6(SDGs6)의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물을 마실 권리’와 ‘기본적인 손 씻기가 가능한 위생 시설 갖추기’를 핵심으로 한다. 위생과 관련한 권

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도 밀접한데,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세부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 제공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 시설 제공 △수질 개선(유해 화학물질 및 자재의 탐방 및 방출 최소화,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폐수 비율 절반으로 줄이기, 재활용 및 재사용 증대 등)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물 부족 문제 해결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한 통합 수자원 관리 구현 △물 관련 생태계(산·숲·습지·강·대수층·호수 포함) 보호 및 복원 등이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의 가치(Valuing water)’, 미래의 가치’이다. 물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모두의 이익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은 우리 음식·문화·건강·교육·경제 및 자연환경에서 거대하고 복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유한하고 대체할 수 없는 물은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며, 오염된 물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망설임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작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쉬운 실천부터 시작해 보자.

社說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서둘러야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다 화재 등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하지만 고용 당국은 여태껏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농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17일이다. 이날 불이 난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 세 개 등에서는 캄보디아·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 16명이 생활하고 있었던 만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처럼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숙소 환경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런데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그동안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같은미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비전통 취업비자인 ‘D-9’를 받은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1만

1143명이다. 이 가운데 주거 실태가 파악된 인력은 4397명인데, 그나마 고용주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해 파악한 수치다. 전체의 60%가 넘는 나머지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셈이다.

다만 고용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은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신규 혹은 연장 채용할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숙소 세 곳 중 한 곳은 냉난방 시설과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이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고용 당국은 당장 실태 조사를 서둘러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과감하게 줄일 필요 있다

일선 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와 교육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질의응답식 수업과 학생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데 최근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작은 학교’가 많은 전남 지역에서는 거리 두기 방역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원격수업 과정에서도 학생 수가 적은 ‘소학급’이 쌍방향수업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학생 수 감축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설정 기초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광주지역의 많은 초·중 교사들은 강의식과 토의식 학습 방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가장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올해 안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올해 사업 계획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포함시켰다. 지역 시민교육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코로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격수업의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급당 정원을 감축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줄곧 제기되는데도 역대 정부에서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 수 감축을 선포 시도하지 못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교육재정을 늘리는가”라는 기획재정부 논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20명 미만의 학생이 20명 남짓한 교실에 전원이 등교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과감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 학생들이 매일 등교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교육 격차와 계층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에텐동산을 떠나가는 아담과 이브의 뒷 모습을 바라보며 절대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 먹은 두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을까? 아니면 ‘호기심으로 뭉친 인간이 결국 선악과를 따 먹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을까? 그도 아니라면 금지된 과일을 에텐동산에 방치해 둔 부주의를 자책하고 있었을까?

신화를 읽은 사람이라면 뇌리에 떠올릴 만한 질문들이다. 하지만 절대지의 입장을 벗어나 인간의 시선에서 현장을 바라본다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를 법하다. ‘왜 절대지는 사람들

몰아넣고 복종과 충성을 강요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신화에서처럼 이들 수많은 에텐동산에는 ‘또 다른 세상, 발전된 세상’에 관한 데이터가 새겨진 선악과가 심어져 있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기존 권력의 박해를 극복하며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승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이 존재할 수 있듯, 왕과 독재자를 비롯한 모든 권력은 그들을 지탱해 주는 국민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당연한 사실에 눈을 떠 왔다.

강요된 권력

지금영국·사우디·태국·미얀마 등 명목상으로는 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리고 ‘에텐동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에텐동산이 존재해 왔다.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존경과 사랑을 강요하는 이들을 비탄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승배를 요구하는 ‘권력’이 바로 그것이다. 왕이나 절대군주, 독재자들이 자신이 주도해 만들어 낸 집단·부족·국가라는 다양한 에텐동산에 사람들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